

 보 도 자 료 2013.8.27.(화)	행사문의	문미경 선임연구위원(02-3156-7103)
	언론담당	황애리 홍보담당(02-3156-7296)
	보도일자	2013.8.27.(화)
	※ 총 4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미래 여성인재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미래 여성인재 육성 전략” 주제로
효과적인 여성인재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2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8월 27일(화)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미래 여성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2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 및 공공부문, 민간부문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이 낮은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미래여성인재 육성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여성리더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효과적인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여성인재가 성장하는데 따른 걸림돌을 진단하고,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최금숙 원장은 “21세기는 여성의 잠재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이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행사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여성인재 전략적 육성방안”을 주제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여성인재 육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 문미경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여성인재 육성의 저해 요인으로 일·가정 양립 이중부담, 리더십·네트워크 등 관리자 역량 배양 부족 등을 지적하며,
- 여성인재 육성에 필요한 전략으로 최고의사결정자의 성 편견 없는 경영의지와 조직에 들어와 있는 초급 여성관리자가 핵심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발전프로그램, 여성의 성장을 가로 막는 일 가정양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등을 통해 여성인재 육성을 필요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신원동 한국인재개발연구원장은 “미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주제로 여성인재 육성 지원제도 현황과 여성인재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살펴보고, 여성인재의 역량강화를 위한 주요 전략을 살펴보았다.
- 성상현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인재관리와 여성인재 활용”을 주제로 성 다양성을 확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우수인재관리가 여성인력 비중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급별, 산업별로 분석하여 핵심인재관리와 성 다양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 주제발표 후에는 김영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사무관, 서정하 삼성SDS 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임희정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순자 인하대학교 교수가 지정 토론에 참여하였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제82차 여성정책포럼] 미래 여성인재 육성 전략
□ 일시·장소 : 2013년 8월 27일(화)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
□ 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구분		내용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회식	사 회: 전기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 사 말: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5:10	발 표	사 회: 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인력정책연구실장) 발 표: 1. 미래 여성인재 전략적 육성방안 문미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미래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방안 신원동 (한국인재개발연구원장) 3. 인재관리와 여성인재 활용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15:10~16:00	지 정 토 론	김영은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사무관) 서정하 (삼성SDS 리더십아카데미 원장)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경영학과 교수) 최순자 (인하대 교수)
16:00~16:10		폐 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